


지휘서신 제9호: 올바른 음주 문화

1. 본 지휘서신은 올바른 음주 문화 관련 기존의 모든 서신에 우선한다. 본 서신의 효력은 철회 또는 대체되기 전까지 유지된다.
2. 사단의 모든 구성원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. 만 21세 이상의 성인은 음주가 가능하지만, 음주는 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. 이러한 책임은 제2보병사단/한미연합사단의 장교 및 준사관, 부사관, 병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다.
3. 지나친 음주는 육군의 핵심가치와 상충하며 우리의 준비태세를 저해한다. 지나친 음주는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. 각급 지휘관은 위험 징후를 보이는 인원들이 육규 600-85에 따라 필요한 치료·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4. 혈중알코올농도 0.15% 이상의 음주는 지나친 음주로서 지휘계통의 조치를 필요로 한다. 군인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음주측정 또는 혈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.15%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, 지휘관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:
 - 가. 비문에 대한 접근 통제
 - 나. 관리감독자 직위에서의 해제
 - 다. 필요한 경우 영외 통행 금지
5. 본 지휘서신에 따른 통제 조치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·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임시적인 조치이다. 지휘관은 각 사안마다 이러한 통제 조치들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고, 필요한 경우 기타 후속 조치를 취한다. 지휘관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소속 법률부처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지만, 음주측정 또는 혈액측정을 지시할 권한은 지휘관이 가진다. 끝.


WILLIAM D. TAYLOR
Major General, USA
Commanding

